

文 야권 지지층 결집 주력…潘 보수층 다지기 안보 행보

달아오르는 대권 레이스

‘문재인-반기문’ 양강 구도 속에 더블 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씩 앞서 나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문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당 안팎으로 강력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이 문 전 대표 견제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모임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토크 콘서트에 참석, 사회자의 “가장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말하며 대권도전을 간접 시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4일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할 전에 할까 한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대선행보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시장이 ‘촛불 공동경선’을 제안하고 김부겸 의원에 이어 동조하면서 문 전 대표 측을 압박하고 있다.

당 밖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문 전 대표를 위협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의 제2 합대를 방문해 천안함 기념관 등을 둘러 본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정권교체라는 제한된 수단보다 전체적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반 전 총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스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또한 문 전 대표와 상반된 입장이다.

반 전 총장은 오는 1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한다. 이어 같은 날 팽목항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한다.

국민의당도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박

이재명·박원순·김부겸

문재인 대세론 견제 고조

박지원 체제 출범 국민의당

‘제3지대론’ 실행 채비

보수 2당은 文 집중포화

지원 체제’를 출범시켜 ‘제 3지대론’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태세다. 박지원 신임 대표는 이날 경선 승리 후 ‘빅텐트’ ‘플랫폼’ ‘제 3지대’를 거론하며 합리적 개혁세력의 결집을 다짐했다.

여기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의 개헌 행보도 문 전 대표를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두 전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당 등과 함께 제 3지대에 ‘빅텐트’를 만든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영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문 전 대표를 경쟁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당의 ‘개헌보고서’ 파동으로 불거진 ‘친문(親文·친문재인) 패권’ 논란을 부각하고 대북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공격함으로써 대통령 후보감으로써의 자질을 문제 삼고 나선 모습이다. “신난 듯 좌충우돌 ‘대권쇼’만 벌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 이는 반 전 총장을 정조준하는 야권의 검증공세에 맞대응하며 반 전 총장을 측면지원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이를 연속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사들의 추모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야권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또 오는 17일 국가 비전 구상 등을 담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를 발간, 복권시트를 연다.

이어 18일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19일 관련 현장 행보를 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방문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1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박지원 대표(가운데)가 다른 후보들과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더 ‘큰 텐트’ 치기 위해 당 기둥 단단하게 박겠다”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대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려온 박지원 의원이 15일 국민의당의 새 선장에 오르며 대선 국면을 지휘할 중책을 맡게 됐다.

호남의 대표적 정치인이자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냈던 그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른 이후 정치권에 복귀. 원내대표는 무려 3차례나 역임하는 등 정치권의 중심에 섰었고 정치 역정의 막판에 한 정당을 온전히 이끄는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박지원호(號)’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졌다.

여기에 호남당 이미지가 강해진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특히, 박 대표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정권 창출의 역할을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전대 과정에서 자강론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연정론과 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등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이날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국민의당이 빅텐트·제3지대가 되고 합리적 개혁세력을 총집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당 밖의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대선구도를 흐드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대표는 이날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당을 대선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며 “당헌·당규에 입각해 당내의 인사가 총망라된 수권비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의 문턱을 낮추고 더욱 열겠다. 우리는 패권정치를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했다. 국민의당이 패권정치 정산의 성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더 큰 텐트, 더 큰 천막을 치기 위해서 우선 당의 기둥을 더욱 단단하게 박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을 명령하는데 개헌을 미루는 것은 수구 패권주의”라며 “합리적인 중도 개혁세력을 모두 모아서 반드시 국회가 국민께 개헌안과 일정을 내어 놓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패권정치 종식, 국가대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 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프로필 ▲진도(75) ▲단국대 경영학과 ▲미주지역학인회 총연합회장 ▲14, 18, 19, 20대 국회의원 ▲청와대 공보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통합 최고위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프로필

문병호 영암 출신 안철수계 전략통

율사 출신으로 재선 의원을 지낸 당내 ‘친안’(친안철수)계 정치인.

고향은 영암이지만 정치적 활동의 무대는 인천이다.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인천 부평갑에서 당선되며 여의도에 입성했고 이후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단 23표 차이로 패했다.

▲영암(58)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28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17·19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

김영환 의사·과기부장관 경력 다채

치과의사와 시인, 과학기술부 장관 등 다채로운 경력을 지닌 4선 중진. 연세대 치과대학 재학 시절 학내 시위를 주동해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석방 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20대 총선 낙선 이후 당 사무총장직을 맡았지만, 당의 촛불 집회 참여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 물러났다.

▲충북 괴산(62) ▲연세대 치과대학 ▲15·16·18·19대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장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장 ▲국민의당 사무총장

황주홍 강진 출신…문재인 저격수

당내 ‘비안’(비안철수)계 핵심으로 꼽히는 재선 의원.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건국대 교수를 역임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남 장흥·강진·영암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의정활동 보고서인 ‘초선일지’를 통해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을 외면한다”고 비난, ‘문재인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강진(65)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건국대 교수 ▲전남 강진군수 ▲제19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손금주 나주 출신…安 발탁 젊은 기대주

국민의당 내 안철수계의 핵심 인물이자 호남 중진들과도 두루 친분을 갖춘 초선 의원.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고 2009년부터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4·13 총선 직전인 2월 1일 안철수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 직접 발탁해 정치권에 발을 디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신정훈 후보를 꺾고 배지를 달았다.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후보자 중 가장 젊다.

▲나주(46) ▲광주고 ▲서울대 국문학과 ▲사법시험 합격(40회)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20대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HNT 하나 Pack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홍콩 · 마카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 062)228-1199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홍콩 · 마카오

캐주얼 CHPF07

초특가 필살기

홍콩.마카오.심천 4일 · 5일

899,000원~

현지 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31 2월 18일~25일 매주 수/토 총 3회

✈ 마카오 항공(NX 항공)

🎁 특식 3회(광동식, 암자식, 한식)

클래식 CHPF05

동반 아동 할인

홍콩(디즈니랜드).마카오 4일 · 5일

1,399,000원~

현지 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31 2월 18일~25일 매주 수/토 총 3회

✈ 마카오 항공(NX 항공)

🎁 특식 3회(포르투갈식, 점토덤섬, 한식)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할일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장전/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

HNT 하나투어